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참여를 위한 ICT 활용 연구 - 대학 영어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

최미양
승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A Study on the Use of ICT for Students' Active Class Participation: Focused on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

Mi-Yang, Choi
Baird College, Soongsil Univ.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읽기수업에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지와 이러한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과목에서 학생들은 수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수업활동의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다 함께 보면서 강의를 들었다. 스마트폰은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고 페이스북은 수업을 LMS 역할을 하였다. 학기 초 사전 설문은 수업활동 과제를 설계하는데 이용되었고 학기말에 사후설문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본 ICT 활용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할 점은 수업활동 범위 좁히기, 여유 있는 수업 진행, 수업활동의 절차 및 의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 교내 LMS 사용을 고려, 사이버 한눈팔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ICT 활용 영어, 영어 읽기, 스마트폰, 페이스북, 능동적 수업참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use of smartphone and Facebook in the classroom induce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ir reading activities and what a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ICT-based English reading class is designed. Students in an English course,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did their reading activities using their own smartphones and posted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on Facebook. Smartphone was used primarily for web-browsing and Facebook as LMS. The pre-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be referred to for designing activity tasks. The post-questionnaire and the interview with 10 stud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how students perceive their clas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ICT induce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ir learning. As for the points to be considered, narrowing down the range of class activities, slowing down the pace of the class, explaining enough the goals and the steps of the activities, considering adopting campus LMS, and preparing solutions for cyberloafing were suggested.

Key Words : ICT-based English, English reading, Smartphone, Facebook, Active class participation

Received 22 August 2017, Revised 22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Choi, Mi Yang
(Baird College, Soongsil Univ.)
Email: hellobud@s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자율적 교육능력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1]. 다시 말해서 졸업 후 평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역량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다. 대학시절 전공으로 선택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교수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 속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이다[2,3,4]. 본 연구자는 ICT 중에서 스마트폰 기능들과 페이스북을 영어 읽기 수업에 도입 하였다.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것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은 학생들의 읽기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5] 것이라고 보았다. 문서기반 학습에 비하여 학습환경이 풍요로워짐[6]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읽기 활동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7] 이는 학습동기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 학기 동안 영어 읽기 활동에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후 이러한 ICT 활용 학습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중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가?
2. 수업 중 스마트폰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가?
3.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읽기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2.1 ICT 활용 영어 교육

ICT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영어 학습에서 ICT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먼저 나온 연구는 인터넷에 있는 영어 학습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이 논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김경애[7]는 영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수업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터넷 활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지만 교수의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수박 겉핥기 식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봉환[8] 역시 영어 학습 사이트를 연구하였는데 김경애의 연구가 수업시간에 사이트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봉환의 연구는 개인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의 영어 학습 사이트에서 학습을 할 경우 능동적 학습태도가 길러진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영어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 주목할 만한 연구는 ICT 활용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 연구이다. 남은희[9]는 ICT 활용 교육은 ICT 기기를 활용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하여 ICT가 만들어낸 통신도구, 자료작성 및 분석도구인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T 활용 교육의 이론적 기저는 구성주의에 있으며 이 교육의 목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논의하며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수업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을 독려하는 조력자이며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탐구해나가는 연구자이다. Zhang[10]은 ICT 중 인터넷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인터넷 보조 영어 교수학습(Internet-assisted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의 장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 교수자가 주의할 점, 학습자들의 활동과제 등과 같은 다각적인 고찰을 하였다. 이 연구 역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학습은 지식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얻게 됨으로써 학습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논의하였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러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는 ICT 활용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론 연구로부터 실질

적인 사례 연구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Ramamurthy & Rao[4]는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스마트폰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의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교수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lar-Magdżiarz[5]은 아일랜드의 ESL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설문을 실시하여 수업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킨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업이 쉽고 재미있어졌다고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수업 중에 와이파이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모바일 기기 상에서 딴 짓을 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었다.

네 번째로 학습도구로서 SNS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조병호[11]에 의하면 SNS를 활용하는 소셜러닝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소셜러닝에 가장 적합한 SNS로 페이스북을 꼽으며 페이스북의 풍성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울 수 있는 학습자원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학습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최재화[12] 역시 정보공유, 상호작용, 협업이 가능한 점을 페이스북의 장점으로 꼽으며 SNS의 유용성을 밝혀주었다.

2.2 스마트폰과 SNS 활용 사례

스마트폰은 그동안 PC가 끼친 영향력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13] 강력한 학습 도구이다. 하나의 기기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인에게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이 학습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SNS 또한 학습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Caleb[14]은 L2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ICT는 SNS라고 논의한다. 선행연구들은 SNS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카카오톡, 페이스북임을 보여주며 구글

플러스의 잠재력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박은영[15]의 연구는 스마트폰의 폭넓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자기소개글을 보내기, 친구와 전화통화하면서 녹음하기, 자신이 음식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카카오톡으로 좋아하는 음악의 링크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짝에게 보내기, 인터넷에서 질문에 답하기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장준혁, 박관우[1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회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구글드라이브에서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수업 후에도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과제를 다시 읽어보거나 편집하였다. 송은혜[17]의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앱인 '영어팟-영어공부 팟캐스트'를 학습함으로써 영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조원들끼리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학습을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위 박은영[15]과 송은혜[17]의 연구에서 카카오톡의 활용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유용성을 밝혀주는 논문으로서 이선훈[18]는 실용영어 수업에서 통제집단은 문서기반으로 하고 실험집단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어대화를 만들도록 하였다.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화[19] 역시 과제 수행시 카카오톡을 사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협력 능력과 협력만족도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결과를 보여주었다.

페이스북의 활용 및 그 효과를 보여준 연구로서 김희진, 광정아의 연구[20]는 온라인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페이스북 내의 그룹에서 과제를 공지받고 모두에게 보여지는 댓글 대신에 메시지로 과제물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교수자의 피드백 역시 용이하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근혜[21]는 페이스북에서 일본어 온라인 독해 수업을 실시하였다. 면대면 독해 수업을 위하여 개발된 직소모형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에 전문가 집단 그룹과 모 집단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이 두 그룹에서의 활동 전후로 개별적인 독해 활동을 하는 방식이었다. 다소 복잡한 수업설계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SNS인 구글 플러스에 대한 연구는 특히 화상채팅 기능인 구글 행아웃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지현[22]은 영어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구글플러스를 통해서 조별로 온라인 토론을 하게 하였고 가끔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 화상채팅을 하게 하였다. 김희진, 허광[23]은 사이버대학교 영어회화 수업에서 다양한 ICT를 활용하게 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조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비실시간으로 카카오톡으로 배운 것을 활용하는 음성메시지와 문자 채팅을 하였고 또 한 번은 실시간으로 구글 행아웃에서 영어로 대화하여 이를 녹화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학기 서울 소재 대학의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과목 2분반 74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목은 교양 선택으로서 주 2회 일주일에 3시간인 수업이며 한 학기 동안 시험기간을 제외한 약 14주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14주 동안 듣기와 읽기를 모두 학습하는데 듣기 스크립트 또한 읽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읽기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는 본 연구자가 편집한 것으로서 대부분 웹 사이트에서 발굴한 글들로 구성되었다.

학기 초에 조 편성을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간단한 독해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의 협력학습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조 편성 시 독해 실력, 협력학습 선호도, 성별, 전공, 학년을 고려하였으며 한 조당 5-6명씩 할당하여 한 분반에 7개 조가 되도록 하였다.

조를 편성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설문결과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검색할 때 영영사전 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영어단어 검색 시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했다.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인터넷으로 참고자료를 검색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었으며, 그 중에 이를 영어로 검색하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77%의 학생들이 이미 페이스북의 가입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읽기 활동 과제를 구성하였다. 과제는 본문의 독해를 목적으로 내용에 대한 주관식 질문이 주어졌으며, 질문 중에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찾거나, 내용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조별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으며 필요한 경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영어 단어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스마트폰 활동 중에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재 본문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영어로 정보를 검색

<Table 1> Pre-questionnaire

Questions	Responses	N	%	Participant
Name the dictionary App you are using.	Naver	56	76.7	73
	Naver and Google	6	8.2	
	Naver and some Apps	3	4.1	
	some Apps	8	11.0	
Which do you prefer, PC or smartphone when using the dictionary App?	smartphone	42	56.8	74
	PC	32	43.2	
Have you searched for information to better understand your reading on the Internet?	yes	40	54.1	74
	no	34	45.9	
In which language did you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nglish	26	66.7	39
	Korean	7	17.9	
	English and Korean	6	15.4	
Are you a Facebook member?	yes	57	77	74
	no	17	23	

하는 능력[8]을 길러주고 싶었으며 영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 자체가 영어 학습이기 때문이다[15]. 과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었다. 본문 내용에 따라 검색할 주제를 정해주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과제 완수에만 초점을 두고 검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검색 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의 2/3선이 지난 후 활동 방식을 변경하였다. 처음에는 검색활동 결과를 조별로 논의하여 한 건만 선택하여 올렸는데 변경 후에는 페이스북의 '글쓰기' 칸에 조를 대표하는 검색 결과를 올리고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조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색결과를 올리게 하였다.

페이스북은 본 과목을 위한 일종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역할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SNS 특성상 접근성이 높아서 수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곳에 수업과 관련된 모든 공지, 교재의 출처인 웹 기사들과 교수가 제공하는 수업 보충 자료 및 활동 과제가 게시되며, 학생들은 수업활동 결과를 기입하게 된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도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수업을 시작하면 강의실 스크린에 활동 과제가 게시된 페이스북 화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활동 중 필요하면 이 스크린 화면을 보게 된다. 학생들의 조별 활동이 끝나면 페이스북 화면에 올라온 과제 수행 결과를 검토하면서 교수자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질문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학기 말에 이러한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후설문을 실시하였고 임의로 추출된 10명의 학생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사후 설문은 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설문 중 5점 척도 10문항은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5문항과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관식 2문항은 수업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이었다. 객관식 문항은 모든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나 주관식 문항은 그렇지 않았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ees

Major/Grade	Sex	Name
Business Administration/4	male	Student 1
Business Administration/4		Student 2
Electronic Engineering/4		Student 3
Public Administration/4		Student 4
Business Administration/3		Student 5
Mechanical Engineering/2		Student 6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4	female	Student 7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3		Student 8
Electrical Engineering/2		Student 9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2		Student 10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 3>에 나타난 설문결과를 보면 수업 중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3.36점으로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높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접근성은 평균 4.1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Table 3> Post-questionnaire regarding Facebook

Statements	Mean	SD
Facebook was convenient to be used as learning tool.	3.57	0.972
Facebook's accessibility was higher than smart-Campus of the school.	4.13	0.900
The use of Facebook boos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class.	3.21	1.006
The use of Facebook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in reading activity.	3.40	1.041
I was satisfied with the way Facebook was used for the course.	3.36	0.917

본 연구자의 페이스북 활용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에 대한 페이스북 활용 효과는 평균 3.40점으로 예상과는 달리 높지 않았으며 조별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역시 평균 3.21점으로 페이스북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를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조별활동의 역동성을 즐기기 보다는 수업에 강압

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조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역할이었다. 페이스북에 조별활동 결과를 바로 게시하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본다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별활동은 자유가 적어져서 불편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 개인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학생 5)

교양이니까 부담 없이 할려고 한 것이 큰데 그게 중간 중간 계속 결과물을 올려야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편하게 하고 싶었는데...뭔가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2)

그리고 페이스북을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인식 역시 높지 않은(평균 3.57점) 것은 페이스북이 SNS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주로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활용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낯설거나 불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NS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던 학생들 역시 페이스북을 학습도구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와 설문지 응답은 아래와 같다.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을 공적인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안좋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페이스북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 페이스북 가입하는 것이 좀 부담됐어요. (학생 7)

또한 인터뷰 중에 학생들(학생 4, 학생 5, 학생 9)이 지적했고 본 연구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 수업 중에 “사이버 한눈팔기”[6]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페이스북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트린 요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페이스북 활용이 지닌 장점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생각한다. 수업활동 과제물을 게시하여 바로 다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던 학생들이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요소였을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에 과제물을 게시하

는 과정 자체가 능동적인 수업참여였다. 페이스북에 수업활동 결과가 실시간으로 일목요원하게 정리가 되며 그것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수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였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메신저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이 수업 참여를 좀 더 유도하였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페이스북을 통해 수업하는 것이라서 접근하기 편했고 재미있는 것을 바로바로 공유하기 쉬웠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4.2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 4>는 스마트폰의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스마트폰을 학습도구로 인식하는 점은 평균 4.14점으로 높게 나왔고 나머지 활용부분에서는 높은 평균점수를 받지 않았다.

<Table 4> Post-questionnaire regarding smartphone

Statements	Mean	SD
Smartphone is a useful tool for English learning.	4.14	0.728
The use of smartphone boos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class.	3.46	0.879
I was satisfied with the way smartphone was used for the course.	3.64	0.817
I am going to search for word meaning in English even after completing this course.	3.74	0.988
I am going to search for information in English even after completing this course.	3.80	0.957

스마트폰 활용이 조별활동 활성화에 유익하다는 인식에 있어서 평균 3.46점이라는 높지 않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페이스북 활용과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조별활동 결과를 페이스북에 스마트폰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라는 주요 활동을 위한 도구였던 스마트폰 활용 만족도(평균 3.64점)가 높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 활용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수업에 대한 흥미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별활동 과제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고 때때로 전혀 새로운 수업 활동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교재 본문을 읽고 본문에 나온 구절을 차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변화가 어떤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업이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는 아래와 같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 수업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약간 다 새로운 것들이예요... 저야 그런것에 좀 익숙한데....(학생 1)

수업부담과 관련하여 “너무 계속된 집중이 필요해서 수업 후 피곤합니다”라는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여 보면, 수업시간을 뻘뻘하게 운영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활동 자체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강의전달식 강의에 아주 익숙해져있거나 능동적인 수업참여보다는 수동적인 강의 청취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은 매시간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주 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별활동과 개별활동이 혼합된 후반부 활동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 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상반된 설문 응답을 보여 주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검색이 좋았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교재 해석과 관련 없는 활동은 수업에 집중도를 떨어트렸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인터뷰한 학생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영어로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점이었다. 영영 사전 활용 역시 유익했다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영영 사전 활용 역시 학기가 지나면 멈출 것 같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두 가지 활동 모두 매시간 하지 않았으며 이런 활동을 매

시간 하었다고 할지라도 한 학기라는 시간이 영어로 검색하고 영영 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기에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주관식 응답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 활동의 의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어 능숙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가 분위기를 보면,,, 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영어단어를 써서 검색하는 것도...저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서 익숙하게 여겨지는데...그런 것 자체를 그런 줄 낮설어하는...수준이에요...그런 것을 어색해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학생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업활동의 부담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점을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 활용이 지니는 자기주도적인 요소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판단된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장점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한 수업이다”라는 주관식 응답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인지한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은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설문 응답은 스마트폰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이 장점이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접근성과 학생들의 흥미 증진이 되었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흡입력있는 수업방식이였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5. 결론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문항의 평균점수는 3.40 점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

관식 응답에 언급된 페이스북에 대한 장점과 인터뷰를 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페이스북 활용은 대체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수업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를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장으로서 직접적인 협업의 도구로 활용한 선행연구들[18, 19, 21, 22]과는 달리 본 수업에서는 협력학습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페이스북은 결과물이 게시되는 학습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협업에 유익하다는 SNS의 장점[11, 12]이 수업에 대한 흥미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업활동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다 같이 보면서 즉석에서 피드백을 해주었던 점과 메시지를 통해 본문 해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빠르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수업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활용 역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전체에 대한 총 평균점수가 3.76점으로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관식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대체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습도구로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수업 이후에 영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과 영영 사전 활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스마트폰 활용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ICT 활용 수업을 도입할 때 수업 활동 과제를 너무 다양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업의 핵심적인 활동을 몇 가지 정하여 그 활동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또한 통합적인 영어 수업이 아닌 이상 읽기 수업에서 말하기 동영상 촬영과 같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활동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기술의 첨단성에 의존하여[24]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ICT를 수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수업의 양에 집착하지 않도록 더

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차시에 다뤄야 할 진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학생들이 여유 있게 수업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진도를 끝내기 위하여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이 수업에 부담을 느껴 오히려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활동 과제의 의의와 수행방법을 확실하게 주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수업활동의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0]. 무엇을 해야 할지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분명하게 안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활동에 의미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적어도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인터넷 검색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넷째, 페이스북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우려하여 일부러 가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도 2017년 1학기부터 무들 기반의 LMS인 ‘스마트 캠퍼스’를 오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게 페이스북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선택하였는데 소수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을 굳이 활용하기 보다는 학습전용 시스템인 교내의 LMS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내의 LMS를 사용할 경우 이미 과목별 방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따로 과목 그룹을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메신저 기능은 이 시스템의 쪽지 기능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폰과 SNS를 수업 중에 활용할 때 학생들이 “사이버 한눈팔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25]에서도 제안하였듯이 학생들의 많은 메시지가 오고가는 카카오톡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정지를 설정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수업참여도와 같은 평가 항목에 이를 명시하여 “사이버 한눈팔기”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수업 중 스마트폰에서 딴 짓하지 말 것을 자주 상기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ICT 활용 영어읽기 수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연구가 ICT 활용 영어 읽기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ICT 활용 영어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제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올수록 ICT 활용 영어 수업이 더욱 학생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Goo Yong Park, "The Idea of the problem-based transdisciplinary lib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43, pp. 469-494, 2012.
- [2] Byoung-Ho Jun, "A study on the effect of affecting factors of SNS on learner's attitude and performance: focused on university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pp. 27-36, 2017.
- [3] Hyun Sook Kim & Eun Young Park, "The effects of learning contract on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ime and learners' reactions in the web-based English educ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19, No. 1, pp. 161-181, 2007.
- [4] Viji Ramamurthy & Srinivasa Rao, "Smartphones promote autonomous learning in ESL classrooms." *Malaysian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 No. 4, pp. 23-35, 2015.
- [5] Ewa Kilar-Magdziarz, "Enhancing an intermediate syllabus for ESL students with BYOD interventions."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Vol. 16, No. 2, pp. 97-115, 2016.
- [6] I. Bakir Arabaci, "Investigation faculty of education students' cyberloafing behaviors in terms of various variable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TOJET*, Vol. 16, No. 1, pp. 72-82, 2017.
- [7] Kyung-Ae Kim, "Suggestions and models for English lesson in the interclass."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40, pp. 211-232, 1998.
- [8] Bong-hwan Lee, "A Research on the effective studying methods to develop the application competence of Englis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Vol. 21, No. 1, pp. 233-253, 2003.
- [9] Eun-hee Nam, "The use of ICT in English teaching : theory and practice."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8, No. 2, pp. 162-177, 2007.
- [10] Juwu Zhang, "Task-oriented internet assisted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in colleges." *International Journal of Web-Based Learning and Teaching Technologies*, Vol. 9, No. 4, pp. 14-32, 2014.
- [11] Byung-Ho Cho, "A social learning as study platform using social media."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Electron Communication Technology*, Vol. 5, No. 4, pp. 180-185, 2012.
- [12] Jae Hwa Choi, "A pedagogical framework for teaching with Facebook."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Vol. 29, No. 4, pp. 89-129, 2014.
- [13] Antony J. Williams & Harry E. Pence, "Smart phones, a powerful tool in the Chemistry classroom."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Vol. 88, No. 6, pp. 683-686, 2011.
- [14] Caleb Prichard,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as a platform for second language instruction." *TESOL Journal*, Vol. 4, No. 4, pp. 752-758, 2013.
- [15] Eun Young Park, "Blended learning using real-life tasks in a college English cla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2, pp. 41-67, 2016.
- [16] Junhyouk Jang & Phanwoo Park, "Impact of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attitude in cooperative learning environment using smart devic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18, No. 4, pp. 521-528, 2014.
- [17] Eunhye Song, "A study of the use of a smartphone English listening app and Kakao Talk on English listening practic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1, No. 3, pp.83-109, 2016.
- [18] Sunhae Lee, "A study on effects of Kakao Talk on English learning - Focus on sentence writing and learner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 Vol. 103, pp.249-277, 2016.
- [19] Eunhwa Chon, "Effects of utiliz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on collaborative skills, collaborative satisfaction and interaction in the collaborative learning." Vol. 11, No. 11, pp. 693-704, 2013.
- [20] Hijeon Kim & Jungah Kwark, "The development of a supplementary Facebook learning model at a cyber universit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Vol. 19, No. 4, pp. 237-260, 2013.
- [21] Geun Hye Yook, "Instructional design of Japanese reading comprehension based on a social network service." M. A. dissert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3.
- [22] Ji Hyun Byun, "A case study of learners' perspectives toward college English classes utilizing Google Plu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Vol. 14, No. 1, pp. 83-102, 2015.
- [23] Hi Jean Kim & Kwang Hur, "A teaching and learning design for e-Learning English conversation subject using SNSs." Language Research, Vol. 49, No.3, pp. 489-525, 2013.
- [24] Mi Yang Choi & Tae In Han. "A comparison of learning effectiveness in face-to-face versus blended learning of TOE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517-525, 2015.
- [25] Mi Yang Choi, "A study on the usage of smartphones for English listening ac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451-459, 2017.

최 미 양(Choi, Mi Yang)



- 1982년 2월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85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 석사)
- 2000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 박사)
- 2012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러닝학과(이학 석사)
- 2003년 3월 ~ 2007년 2월 : 인천 국립 대학교 어학원 초빙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실용영어, ICT 활용 영어, 이러닝
- E-Mail : hellobud@ssu.ac.kr